

## 다타라 제철의 변천사

제철 기술은 아나톨리아(지금의 튀르키예)에서 기원하여 중국과 한반도를 거쳐 6세기 후반에 일본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대 유적을 통해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제철에 철광석을 사용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철광석이 부족했고, 곧 자연에 풍부하게 존재했던 사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 고대의 다타라

초기 다타라 용광로는 야외에 설치했으며, 동물 가죽으로 만든 풀무로 공기를 불어 넣어 화력을 올리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본래 세토 내해 주변에 집중되었던 서일본의 철 생산은 11세기부터 13세기 사이에 주고쿠 지방(시마네현, 돗토리현)의 산간 지역으로 중심지가 바뀌었습니다.

### 근대의 다타라

이후 수세기에 걸쳐 전국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였고, 농기구와 생활 도구, 무기를 만들기 위해 다량의 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타라 용광로는 점점 대형화되었고, 더 강력한 발풀무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과 더불어 다타라 제철은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최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 현대의 다타라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연속 조업에 따른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서양의 반사로가 수입되면서, 제철 업계에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제철소는 경쟁력을 잃게 되었고, 기존 제법에 가쿠로(角爐)라고 불리는 벽돌 용광로를 적용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다타라 제철을 이용한 일본 전통 제철법은 명맥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1920년대 초에는 마지막 다타라 용광로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습니다.